



#배움 관련 속담 따라쓰기

글을 익혀 앞길을 닦는 속담과,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는 속담이 한자리에 있습니다.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기술을 배우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.

1 보기

바른 글씨의 뼈대와 획을 눈으로 읽습니다.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연필로 천천히 덮어 씁니다.

3 혼자 쓰기

십자 보조선만 보고 스스로 씁니다.

수록 속담 3개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01 글 모르는 귀신 없다 | 2쪽 | 03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 | 4쪽 |
| 02 살아가면 고손자한테도 배운다 | 3쪽 | | |



연습 3쪽 · 짧은 속담은 한 쪽에 두 개, 긴 속담은 한 쪽에 하나만
칸이 큰 쪽이 잘 쓴 글씨입니다. 서두르지 마세요.

#배움 모아보기
이 주제 속담 더 보기





1 / 3

글 모르는 귀신 없다

귀신도 글을 알 정도로 배움은 중요하니, 사람이라면 당연히 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

획의 뼈대를 읽기

글 모 르 는 귀 신 없 다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글 모 르 는 귀 신 없 다

3 혼자 쓰기

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2 / 3

살아가면 고손자한테도 배운다

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야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살 아 가 면

고 손 자 한 테 도 배 운 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살 아 가 면

고 손 자 한 테 도 배 운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3 / 3

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

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할아버지라도 어린 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으로, 누구에게나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는 말이야.

1 보기 획의 배대를 읽기

팔	십	노	인	도	세	살	먹	은	
아	이	한	테	배	울	것	이	있	다

2 따라 쓰기 얇은 글씨를 덮어 쓰기

팔	십	노	인	도	세	살	먹	은	
아	이	한	테	배	울	것	이	있	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오늘 따라쓰기를 마쳤습니다.

보호자 확인

